



**NH투자증권**  
**해외주식 환전 우대 서비스**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자동 우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 우대율은 미국 달러화(USD) 기준 최고 80%까지 적용되며, NH투자증권 해외주식 거래 고객이면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고객 등급 혹은 환전 금액에 따라 차별화된 우대율이 자동 적용 되는 것으로, 상세 기준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제품 NH투자증권 글로벌주식부부는 “환전 자동 우대 서비스 실시로 고객은 온라인에서도 NH투자증권 고객 등급 및 환전 금액에 따라 합리적인 환율을 제공받게 됐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우대가 적용되어 고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하나UBS자산운용**

**‘그레이터코리아 펀드’ 출시**

하나UBS자산운용은 한반도 평화기류 정착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더 큰 대한민국의 주목하는 ‘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 펀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협소한 내수 시장 규모,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낮은 배당률,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완화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

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 펀드는 한반도의 평화기류 속에서 공동 번영을 꿈꾸는 신경제공동체 시대를 맞이해 저평가된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세변화에 따라 국면별 수혜업종 및 업종별 대표주를 발굴하여 초과 성과를 추구하며 실적개선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김문호 기자

**外人 국내주식 2조 순매도**

지난달 외국인 국내 주식을 2조원이 넘게 팔아치웠다. 증권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2040억원을 순매도해 한 달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9000억원, 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1000억원), 중동(-1조3000억원)에서 주로 매도했고, 미국(1조4000억원), 아시아(3000억원)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4000억원), 사우디(-1조2000억원), 룩셈부르크(-4000억원) 등의 매도 규모가 컸고, 미국(1조4000억원), 중국(2000억원), 싱가포르(2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643조8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백화점-이마트’ 두 축, 남매경영 기반 탄탄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⑨ 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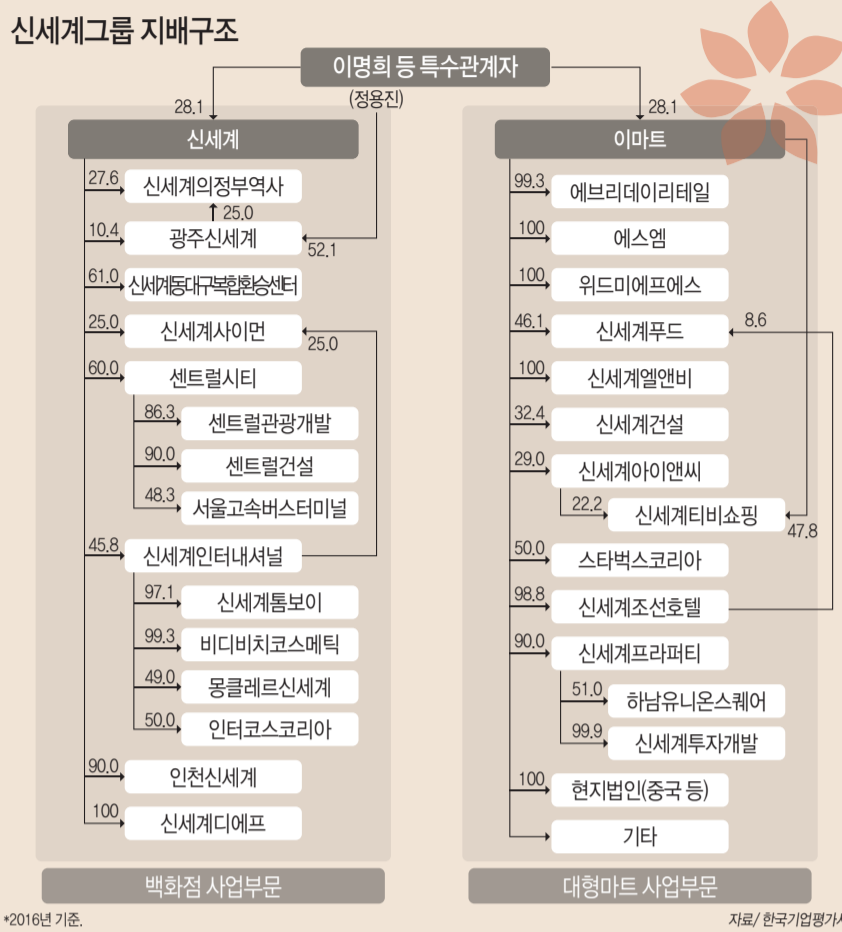
정용진, 이마트 등 대형마트부문 정유경, 신세계百貨 사업부문 맡아 증여세 1조 부담... 자금 확보 필요

신세계그룹은 안정적인 3세 경영체제를 완성한 상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은 백화점 사업부문을 맡으며 남매 분리 경영 체제를 만든 것. 이제 여전히 그룹 최대주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승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1년 신세계의 백화점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대형마트 부문을 신설법인인 이마트로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시작으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나섰다. ‘신세계’와 ‘이마트’를 지주회사 격으로 두고 있는 신세계그룹 지배구조의 초석이다.

이후 2016년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보유 지분을 맞교환하며 분리경영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지분 772만203주(7.3%)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정 총괄사장은 이마트 지분 70만1203주(2.5%)를 정 부회장에게 각각 넘겼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이마트 지분 9.8%,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지분 9.8%



보유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

남매의 지분 교환 이후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도 빠르게 진행됐다. 우선 신세계 백화점이 운영하던 프리미엄마켓과 스타슈퍼 도곡점 등 4곳을 이마트로 양도하며 식품과 마트사업을 정 부회장이 총괄하게 됐다. 이어 신세계에 남아있던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10%도 이마트로 모두 넘겼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스타필드 등의 복합쇼핑몰(신

세계프라퍼티)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정 총괄사장은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에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에 정 명예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은 종전 21.68%에서 0.68%로, 정 총괄사장의 지분은 0.43%에서 21.44%로 바뀌었다. 정 총괄사장이 신세계인터내셔널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신세계백화

점과 면세점, 패션사업(신세계인터내셔널) 등 패션유통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18.2%)와 이마트(18.2%) 지분이다. 신세계그룹의 지분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 경영승계 작업은 마무리된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증여세 부담이다. 14일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지분가치는 1조3622억원, 신세계는 7514억원이다. 증여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용진 정유경 남매는 증여세 마련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지분은 52.08%로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지분가치는 2000억원에 달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분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신세계 지분 확보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신세계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인영NICE 신용평가책임연구원은 “이명희 그룹회장의 지분승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배구조 변동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배구조 변화, 이에 따른 계열 지배범위 변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3D 검사장비 기술력 탁월... ‘로봇회사’ 우뚝

**코스닥 기업탐방**

**고영**

세계 최초 3D SPI·3D AOI 개발  
‘리얼타임 컴퍼니’ 신기술 신속 공급

“고영의 사업 전략은 쉽게 풀리지 않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퍼스트(first)에 집착한다.”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고영의 연구개발(R&D)센터에서 만난 박현수 고영테크놀러지 경영기획팀장은 “해외시장에서는 고영을 로봇회사로 부른다”며 자사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고영은 작년 6월 국내 최초로 로보글로벌의 ‘로보틱스 자동화 인덱스(ROBO ETF)’ 지수에 편입됐다. 지멘스, 엔비디아, 파나 등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다.

2002년 설립된 고영은 핵심 역량인 메카트로닉스, 광학, 비전, 소프트웨어



경기도 수원 광교에 위치한 고영 R&D센터./고영

(S/W) 기술을 바탕으로 3D 측정 기술을 통해 다양한 공정의 불량률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불량 원인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영은 세계 최초 3D 납도포검사기(SPI)를 개발했다. 이후 개발한 3D 자동광학검사장비(AOI) 역시 세계 최초다. SPI는 기기의 성능 자체를 검사하는 장비이고, AOI는 생산 공정 각 단

계에서 바로 전의 공정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다. ‘최초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고영의 사업 전략이다.

고영의 3차원 검사장비와 서비스는 모바일, 자동차 전자, 의료, 군수, 항공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활용된다. 단순 이미지 비교로 부품의 오류를 발견하는 2D 검사장비와 달리 3D 장비는 전자기기 부품을 수직과 시켜 구체적인 차이를 숫자로 보여준다. 오류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잡아주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 전략은 ‘리얼타임 컴퍼니(real time company)’다. 이를 위해 중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에 해외법인을 세웠고, 베트남에는 사무소를 열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리얼타임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고영의 성장전략은 안정적 성장이다. ‘꾸준한 고성장’이다. 최근 지역마다 흩어져있던 연구개발(R&D)센터를 광교로 통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고영의 3D 뇌수술용 의료로봇 IST-가이드 로봇./고영

고영이 지난해부터 본격 개발·생산에 나서고 있는 3D 뇌수술용 의료로봇 ‘IST 가이드 로봇’은 고영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전망이다. 이는 뇌수술 시 3D 영상을 통해 주요 혈관과 신경을 피해 정확한 위치로 수술도구가 가이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 산하 한 병원과 공동 개발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도 한양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삼성 병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

고영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2034억원, 영업이익은 31.6% 증가한 437억원을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 시노펙스, 흑자 전환... 51억 순이익 올려

**영업익 ↓... 실질적 매출 2분기부터**

시노펙스가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 시노펙스는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실적과 관련하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무려 64.2%가 증가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개선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매출액은 487억원으로 전년 동기

459억원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손과 계열 편입된 넥스피안과 관련된 영업권 일괄 상각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였던 당기순이익은 무려 5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시노펙스의 매출 증가는 FPCB 및 멤

브레인필터의 양 사업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고루 개선된 덕분이다. 하지만 베트남 빈트리그 사업장이 지난 4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이 2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1분기의 경우 전체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나아졌으나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김문호 기자 kmh@